

독립정신

2017. 11, 12 통권 96호

권두언_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하자_이종찬

특별기고_서거 70주기 맞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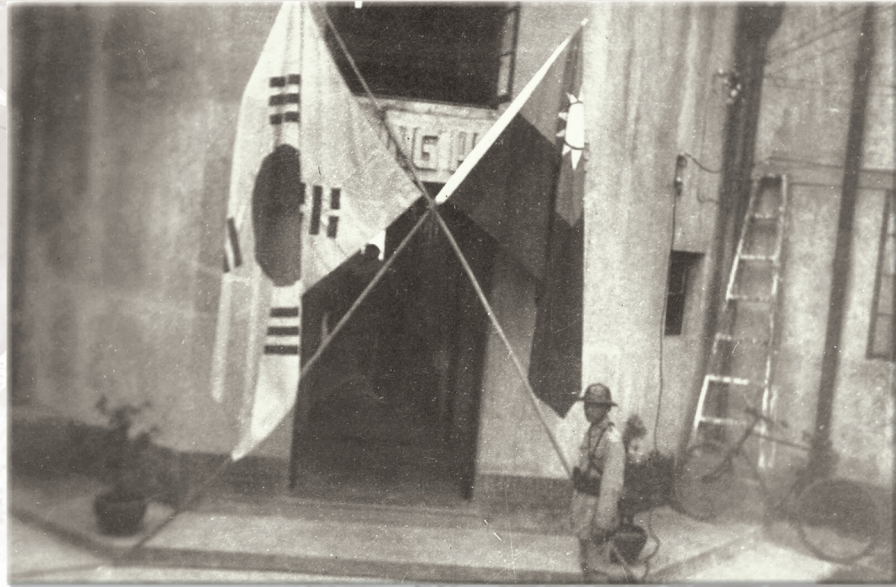
친일파와 그 후손들(16)_호부견자(虎父犬子)...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와 민족반역자 손자_최광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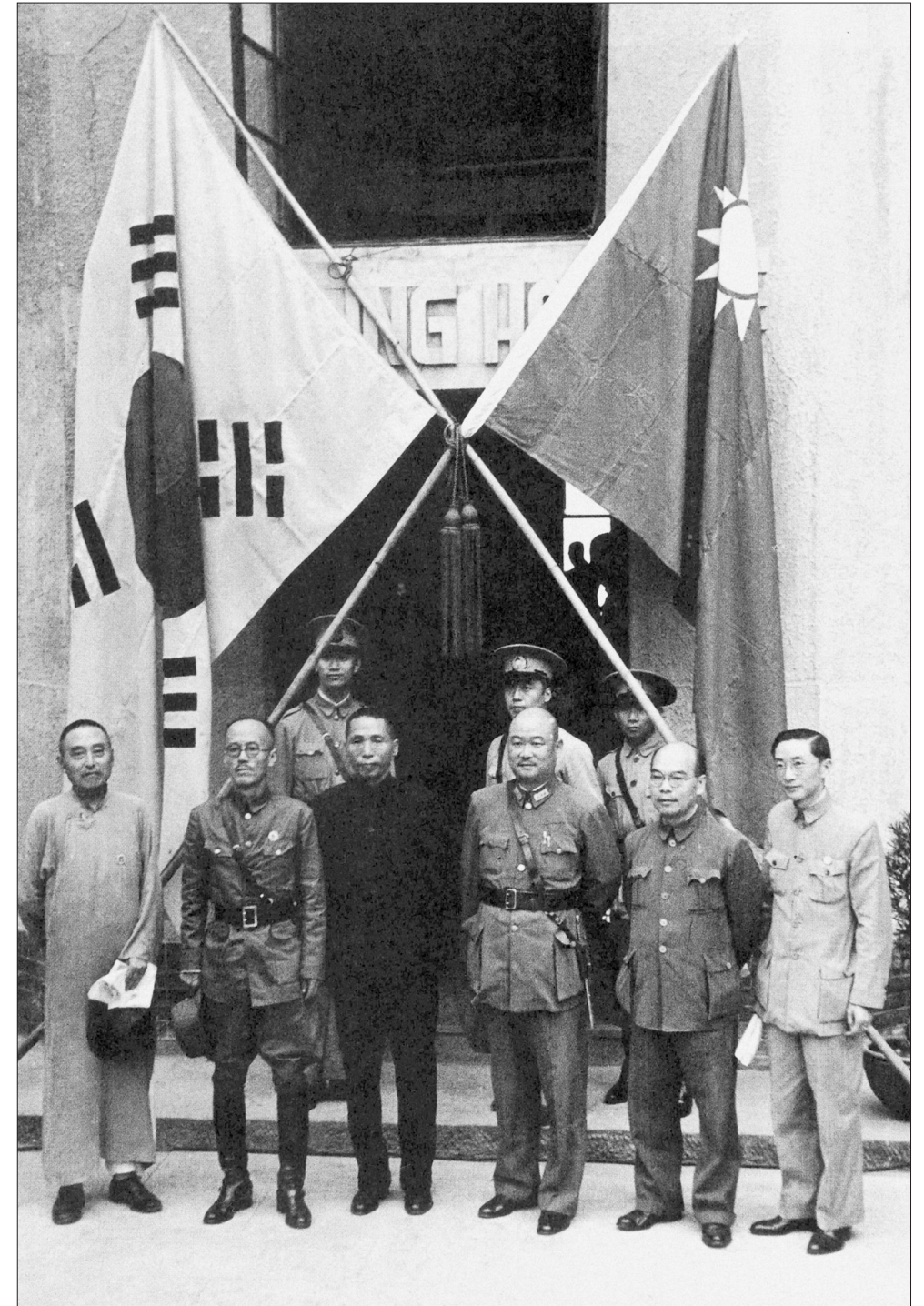
우리고장의 독립운동_창원 _남재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현황_박덕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장(충청 자령빈관, 1940. 9.1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충청 자령빈관(嘉陵賓館)에서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자령빈관은 충청 시를 끼고 흐르는 자령 강 기슭에 위치한 호텔로서 연합국의 충청 주재 기자들이 일종의 프레스센터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성립 전례식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본 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성립식을 거행한 것이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후 한중 대표(1940.9.17)

(좌로부터 ○ · 이청천 · 김구 · 류즈 · ○ · ○)

독립정신

2017 11 * 12

통권 96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곽태원, 이두엽, 김대영, 최석우, 이일선, 조은희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04 권두언_ 국군의 날을 9월17일로 하자
| 이종찬



06 특별기고_ 서거 70주기 맞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위기
| 장원석



15 친일파와 그 후손들(16)_ 호부견자(虎父犬子)...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와 민족반역자 손자
| 최광웅

19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 창원
| 남재우

26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현황
| 박덕진

29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 여공으로 독립 운동에 앞장선 “박재복”
| 이윤옥

31 영화읽기_ 영화 <레드 바론>과 <덩케르크>, 영화라는 만화경 속의 전쟁
| 이두희

36 임정서거_ 심산 김창숙 평전 일제식민통치기구사건 박정희 평전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 편집부

40 독립정신 이모저모



국군의 날을 9월17일로 하자



이 종 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장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는 중국의 피난 수도인 중경(重慶)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열망했던 광복군 총사령부 재결성을 하게 되었다. 이날 조소앙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정미년(丁未年, 1907년) 8월1일 대한국군 해산하던 날이 곧 광복군 창립된 날”이란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

이 보고는 대단한 역사적 함의를 나타낸 명언이었다. 우리의 선열들은 역사를 토막토막 내는 역사가 아니라 ‘단절 없는 역사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1917년 7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독립운동가 14명이 합동으로 선포한 「대동단결선언」에서 “융희황제(隆熙皇帝)가 삼보(三寶, 국민, 국토, 주권 등을 말한다)를 포기한 8월29일은 오인 동지(吾人 同志)가 삼보를 계승한 8월29일”이라했다. 이를 풀어보면 1910년 8월29일은 국치일이 아니라 조선왕조가 주권을 국민에게 인계한 날이라는 뜻이다. 고로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어갔음을 의미하며 왕권이 민권에게 이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합법인 것이고, 이를 일본이 가로채려함은 불법이란 뜻이다.

선열들의 단절 없는 역사인식의 기반을 둔 ‘주권불멸론’은 항일투쟁기간 중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었다. 이는 마치 독일이 프랑스를 일시 군사적으로 점령했는지는 몰라도 프랑스의 주권은 여전히 프랑스 국민에게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보면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었지만 이는 불법이므로 전국에서 의병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의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제국군의 장병들은 거의 대부분 봉기하여 의병으로 항일투쟁에 참전했다.

대표적으로 민공호 부사관이 350명을 인솔하여 관동 의병으로 봉기했고 원주 진위대의 홍우형이 합세했다. 그리고 강화 진위대 유명규, 연기우, 지홍윤 등이 봉기했다. 1907년 11월 전국 의병장들은 연합 의병부대 편성했는데 48개부대, 의병 1만여명이 십삼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병들이 장비면에서 우세한 일제 군에 맞서 싸우면서 많은 희생을 하여 한만국경까지 밀렸지만 대한제국군의 간부였던 이동휘, 이필주, 김창환, 노백린, 이갑, 유동열 등이 적극 참여하여 독립군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안중근 의사도 독립군의 일원으로 전투했다, 그가 재판과정에서 “나는 독립군의 중장이다. 나를 포로로 대우하라”고 주장한 것도 당연한 요구였다. 1911년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어 3000여명의 군 간부를 양성하게 된 것도 지청천, 이범석 등 간부들이 교관이 되어 훈련을 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등으로 독립군을 재편함으로써 정부의 군사부로 본격적인 대일 무장투쟁을 시도할 수 있었다.

위에서 보듯이 광복군이 성립된 것은 대한제국군이 의병으로 탈바꿈했고, 의병이 독립군이 되었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었다는 단절 없는 역사에서 근거를 찾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의 연원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당연히 그 모체는 독립투쟁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명시하듯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법통도 광복군에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광복군이 독립투쟁의 깃발을 다시 들은 9월17일로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서거 70주기 맞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위기



장 원 석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몽양 여운형 선생(1886~1947)은 해방 후 극심한 좌우대립 속에서 총 12차례의 테러를 당한 끝에 결국 1947년 7월 19일 극우테러분자의 흉탄에 쓰러졌다. 서거 70주기를 맞은 올해 그 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몽양 여운형기념관이 민간위탁 입찰부정을 비롯한 양평군의 도를 넘은 행정 적폐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국·도비 지원,
유족과 기념사업회의 토지·유물 기증으로 건립된 몽양여운형기념관

여운형 선생은 서거 후에도 이념적 왜곡과 편협이 끊이질 않아 오랜 기간 우리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뜻있는 분들이 유족들과 힘을 합쳐 1991년 ‘몽



몽양여운형기념관 전경

양여운형선생추모사업회’를 발족하여 추모식 거행, 기념강연회 개최, 『몽양 여운형 전집』 발간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전개했다. 2005년에는 추모사업회를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로 발전시키면서 몽양 선생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7년에는 몽양 선생 서거 60주기를 맞아 추모식과 더불어 몽양 선생의 독립·통일 정신을 널리 알리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몽양 선생께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공이 있는 독립운동가에게 드리는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이와 동시에 선생의 고향인 양평군에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70억 원을 배정되었다. 실제 건립은 2011년 국비 17억원, 경기도비 8억 5천만원, 양평군비 8억 5천만원, 총 34억원의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건립 부지는 기념사업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족 대표가 양평군에 기증했다. 또한 유족과 기념사업회는 그간 보관해오던 주요 유물과 자료들도 기증했다.



기념관에 전시 중인 몽양 여운형 선생 혈의

몽양여운형기념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58개 기관 중 8위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 직후 양평군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아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다. 매년 7월 19일 서거일에 추모식을 거행하고 추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독립, 통일, 외교, 체육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에 남긴 여운형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했다. 또한 탄신일인 5월 25일을 몽양 여운형의 날로 지정하고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작년 2016년에는 탄신 1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대한체육회 회장 등 각계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군악대 축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고, 전국 주요 독립운동관련 20개 기념관을 초청하여 체험박람회를 진행하는 성대한 행사를 치렀다.

기념관 전시로는 상설전시와 더불어 매년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시대를 앞서간 민족지도

자 여운형 사진전’, ‘광복 70주년 특별전시-8.15 그 감격과 환희의 기억 뒤편’, ‘3.1운동의 숨은 주역들’, ‘한반도를 깊어지고 달려라-한국 체육의 선구자 몽양 여운형의 발자취’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몽양 선생의 숨겨진 모습들을 소개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몽양역사교실’, ‘청소년 몽양역사교실’을 운영하여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강좌 ‘몽양역사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들 모두 양평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는데, 특히 월1회 개최되는 몽양역사아카데미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기념관 홍보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몽양여운형기념관은 불편한 접근성, 사회 일부에 남아 있는 몽양 선생에 대한 이념적 왜곡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다른 어느 기념관, 박물관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에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58개 기관 중 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입찰부정을 통해 새마을회를 신규 운영자로 선정한 양평군

하지만 기념관 개관 이후 양평군은 기념사업회의 위탁운영을 방해하는 횡포와 갑질을 일삼아왔다. 기념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면서 예산상 전횡을 저지르는 한편, 2016년 초에는 뚜렷한 사유 없이 위탁협약을 체결을 미루며 18일간이나 기념관을 강제 휴관하는 등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갑질 행정을 자행했다. 마침내 작년 12월 양평군이 그동안 기념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기념사업회를 배제하고 자격 없는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는 마을 새마을회와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이다. 이 두 단체는 모집공고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인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위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이들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 관련 공무원들은 새마을회 관계자 등과 사전 모의를 거쳐 기습적 공모와 편파적이고 부당한 심의평가를 하는 등 광범한 민간위탁 입찰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의 항의와 광복회 및 17개 항일독립운동가선양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진정이 이어지자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자진 철회하여 새마을회와 양평군 간의 협약체결도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자신들이 게시한 위탁공고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평군 김선교 군수는 기념사업회의 거듭된 협의 요청과 상급기관 및 사회 각계의 권고도 무시하고 기념관을 돌연 군청 직영으로 전화했다. 뿐만 아니라 군수는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며 1년 가까이 기념관 장기 파행운동을 방조하고 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사태 해결을 위한 항일독립운동가선양단체 연합기자회견(2017년 1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진상파악과 대책마련 촉구

이에 맞서 기념사업회는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각계에 기념관 정상화 촉구를 호소했다. 지난 9월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몽양여운형기념관 사태 파

악과 해결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1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이 지방자치를 구실로 기념사업회를 기념관 운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에는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이 기념관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이종걸 의원과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10월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의원들이 기념관 사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할 것을 공언했다.

1년간의 긴 투쟁을 함께 한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들

지난 10월 30일 그동안 기념관을 지켜오던 기념사업회 직원들이 기념관에서 퇴거, 철수했다. 양평군이 '기념사업회가 몽양기념관을 불법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제기한 명도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위탁공모의 위법성은

따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17년 위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가 기념관을 운영할 권리가 없으므로 일단 기념관을 양평군에 인도하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기념사업회가 승소하면 다시 들어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념관 직원들은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근무하던 기념관에서 만 6년을 이틀 앞두고 철수했다.

하지만 기념관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년 12월 사태가 발생한 직후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들이 평일에는 양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주말에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기념관 사태를 알렸다. 1인 시위와 집회는 추운 겨울 해를 넘기며 100일 이상 계속되었다. 지난 9월 말에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멀리 경상북도 구미 등 지방에서 올라오신 회원들도 있었고,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병원에 실려 가신 분도 있었다. 지난 1년간 함께 싸운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들과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기에 기념관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끝)



양평군 군청 앞에서 100일 이상 시위를 이어온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들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에 참가한 이부영 회장과 회원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부영 회장과 회원들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가한 이부영 회장과 회원들

호부견자(虎父犬子)...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와 민족반역자 손자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2017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명 친일파들의 무덤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실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국립 서울현충원 7명, 국립 대전현충원 4명 등 총 11명이 국립 현충원에 묻혀있다고 한다.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웅균, 신태영, 이웅준, 이종찬이 서울 현충원에,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대전 현충원에 각각 안장돼 있다. 그런데 특히 김백일은 그 후손과 재향군인회 등에서 끊임없이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하며 친일파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호부견자(虎父犬子)’는 한 마디로 말하면 ‘개자식’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는 ‘아버지는 항일독립운동의 맹장이었는데 그 아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고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민족반역자(개자식)’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다. 김백일(金白一)은 그

아버지(김창근)가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때문에 독립투사인 조부 김영학(金永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조부는 구(舊)한말 선각자로 함경북도 명문인 '함일학교'의 제2대 교장을 맡기도 하였다. 한일병탄 후 북간도로 망명한 후 연변교민회 간부 등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13일 만주 용정에서 독립선언 축하회를 개최하였고 조선국민의사회 회장이 되어 <조선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임시정부 지도를 받아 간도광복단 총기구입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28년 서울로 잠입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석방 후에도 항일 독립투쟁에 매진하다가 또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1944년 7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정부는 1990년 고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런데 선생의 손자 김백일은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제5기로 졸업하고 1937년부터 만주군에서 복무하였다. 수많은 공적을 세워 일본 정부는 그에게 서보장을 수여하였다. 해방 당시 그의 계급은 만주군 상위였다. 김백일의 창씨개명은 가네자와 도시미나미(金澤俊南)이다.

1932년 일본 괴뢰국으로 성립된 만주국은 항일투쟁에 나선 한-중 연합군 소탕을 위해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를 창설한다. 만주국 북부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민족해방세력인 팔로군(조선인 부대 '독립단' 포함), 동북항일연군(중국공산당이 조직), 조선의용대(김원봉 부대)와 만주 북서부에 잔존해 있던 대한독립군단(김좌진 부대)을 토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북한 김일성이 주도했다고 선전하는 보천보 전투 승리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의 주요 간부인 오성륜·이상준·엄수명 등의 전과로 기록된다. 이들은 1936년 '재만(在滿) 한인조국광복회'를 결성한 후 이듬해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보에서 승전보를 올린다. 이 때문에 그 해 일제는 관동군과 만주군을 동원하여 대토벌을 진행해 700여명을 검거했다. 김백일이 만주군에 입대한 바로 그해이다.

왕산 허위는 석주 이상룡, 우당 이회영 집안과 함께 독립운동 3대 명문가로 손꼽힌다. 친형 허검과 4촌 동생 허필 등은 만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에 헌신하였다. 왕산은 평리원 재판장(현재 대법원장) 서리, 의정부 참찬 등을 역임하는 등 출세가도를 달렸으나 1895년

단발령을 계기로 1차 의병에 가담하였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13도 의병연합부대 군사장을 맡아 경기도 일대에서 대대적인 항일 유격전을 벌이는 등 한양 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1908년 6월 경기도 양평에서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교수형을 당했으나 서대문형무소 설치 이후 첫 사형 집행이다. 서울 왕산로는 그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 이름이다.

허형식은 허위 선생의 사촌 동생인 허필의 아들이다. 그는 21세이던 1930년 5월1일 '붉은 5월 투쟁'을 계기로 항일운동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는 한인청년 40여명을 규합하여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허형식은 '치안교란혐의'로 체포돼 봉천감옥에 수감된다. 여기서 그는 당시 북만주지역 항일연군 지도자 조상지와 중국공산당 소속 항일운동가 김책을 만나면서 동북항일연군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출옥 후 만주 빈현 일대에서 반일동맹회·공산주의청년단 등 항일 단체들을 조직하였다. 1935년 1월 동북항일연군 제3군 산하 제2연대장에 부임하였고 1938년 4월 제3·6·9·11군을 통합, 제3로군이 조직되자 총참모장 겸 제3군 제1사 사장(師長)에 임명되었다. 허형식은 중국공산당 북만성위 집행위원, 12지대 정치위원 등도 겸직하였다.

허형식은 1940년 일본군의 군사거점인 풍락진을 습격하여 경찰국장을 사살하고 하얼빈 일대를 점령하여 관동군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가 지휘한 제3로군은 용남·용북 지방에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300여회의 전투를 벌여 이 일대 27개 도시를 점령하였다. 제3로군은 기차역 5곳, 일본의용대훈련소 5곳, 비행장 1곳을 습격하여 만주군과 경찰 1,557명을 사살했으며 기관총 7정, 박격포 4문, 기타 총기류 1,500여점을 노획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며 동북항일연군 지도자 조상지 등이 사망하자 대부분 대원들이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소련 영내로 도피했다. 그러나 허형식은 만주에 남아 끝까지 일제와 맞섰다. 그는 1942년 8월 3일 청봉령 소릉하 계곡에서 일군 토벌대의 습격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한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김백일이 복무한 간도특설대는 항일독립투쟁 군대 토벌을 위한 일제의 명명백백한 앞잡이이다. 그런 까닭에 김백일은 종전 후 조부의 고향인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국했다가 북한정권 수립을 피해 월남하였다. 해방 공간에서 군사 영어학교를 졸업한 뒤 중위로 임관하였고 남조선국방경비대 제3연대장에 오르는 등 대한민국 국군 창설 주역으

로 둔갑한다. 그는 또 6·25 전쟁 당시 38선 돌파, 북진 작전 선봉장, 흥남 철수 ‘피난민의 아버지’ 등으로 이름을 남긴다. 그는 1951년 3월 28일 불의의 비행기 사고 때문에 순직하였고 중장에 추서되었으며 국립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일행적 사실은 씻을 수 없다.

그의 2남 1녀 중 차남인 김동명(육사 28기)은 유복자로 태어나 월남 파견 맹호부대 소령, 기갑여단장 등을 지내고 1997년 말 정기인사에서 별을 달았다. 부자 장군 탄생인 셈이다. 한 국안보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인 그는 그의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 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김백일이야말로 대표적인 ‘호부견자(虎父犬子)’이다.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 창원



남 재 우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풍속은 거칠고 사나우며 송사를 좋아한다.(속상추포견송 俗尙麤暴健訟)” 『세종실록지리지』에 서는 창원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창원사람들은 삼별초항쟁, 두 차례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왜구 침탈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생업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거칠고 사나웠으며’, 가림주구를 일삼던 봉건지배층의 불의에 저항한 것이 ‘송사’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불의에 참지 못했던 창원사람들의 모습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봉건사회의 모순에 항쟁으로 맞섰고,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해방이후의 민주화운동에서도 그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창원지역¹⁾은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되었다. 1960년 3·15의거는 해방이후 남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고, 4·19혁명으로 이어져 독재정권타도와 민주정권의 확립을 가

1) 2010년 7월 1일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되어 지금의 창원시가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공간적 범위는 지금의 통합창원시이다.

저왔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87년 6월항쟁과정에서도 창원 지역민들은 그 중심에 있었다.

일제에 의한 강제개항과 창원

창원 지역은 일찍부터 제국주의 열강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어서, 영국과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집요했다. 1899년 5월 1일 마산포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산포에 관심이 높았던 러시아를 축출했고, 일본이 독차지했다. 진해만 일대는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 연합 함대가 군사 훈련을 하던 곳이었다. 1910년 4월부터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군항건설과 계획도시로서의 시가지 조성공사가 정식으로 착공되었다. 만들어진 진해신도시는 이곳에 살았던 한국인들의 삶을 빼앗고 내쫓은 결과였다. 창원지역은 일제 수탈과 침략의 전진기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시기 동안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3·1운동 뿐만아니라, 192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고, 많은 독립투사가 배출되었다.

3·1운동과 창원

1910년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는 억압과 수탈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창원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창원지역의 첫 번째 시위는 3월 3일이었다. 오전 11시쯤 두척산[무학산]에서 고종 황제 국장 행사에 모인 시민들에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과 항일 쫓겨난 고향을 고취하는 연설과 함께 독립 선언서가 배포되었고 시민과 학생들이 만세 행진을 벌였다. 3월 10일에는 추산정에서 독립 선언서가 낭독되기도 했다. 3월 21일에는 구마산 장날에 의거가 일어났다. 구마산 장터에 인근 창원면과 내서면, 진동면, 진전면, 진북면 등 농촌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3월 23일에는 창원읍장터에서 설관수, 배중세 등 유교세력과 비밀결사조직 선각자들에 의해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시장에 모인 6000~7000명이 만세를 외쳤다.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격렬함을 보여준 사건은 4월 3일 발발한 삼진의거다. 3월 28일 고현의거에서 검거되지 않은 변상태, 변상현, 권영대, 권태용 등이 모의하였고, 진동면을 비롯한 진전면과 진북면 일대의 지도자들이 대거 가담했다. 거사일을 4월 3일로 결정한 주동자들은 서당에 모여 태극기를 제작하고 유교 세력과 개화된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규합했다.

의거 당일 오전 9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군중 수가 2,000명을 넘었으며 점차 늘어났다.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진동 읍내 장터로 진입했다. 운동은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주동 인물들이 ‘십인장(十人長)’, ‘이십인장(二十人長)’이라고 쓴 흰 수건을 머리에 감고 시위대를 이끌었다. 10명 혹은 20명씩 조직을 만들어 치밀하게 의거 현장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시위는 진압되고 말았다. 오후 3시 마산의 중포병 대대 병력이 증파되었다. 8명의 사망자와 2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목숨을 잃은 8명은 김수동, 변갑섭, 변상복, 김영환, 고양주, 이기봉, 김호현, 홍두익 등이다.

진해지역에서도 만세시위는 거셌다. 4월 3일의 시위는 연합형태였다. 웅천지역에서는 김창업, 정운조, 문석주 등은 북부동 김재형 전 웅천군수 자택에서, 여성인 주기선, 김조이, 주녕옥 등은 웅천교회에서 시위준비를 했다. 웅동지역은 민족학교인 계광학교 교사 주기용 등이 시위를 계획했다. 웅동에서 시작된 시위대는 웅천에 이르렀을 때 2000~3000여명이 되었다. 4월 22일에는 마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계속되는 만세시위로 24일에는 임시 휴교하기도 했다. 4월 29일에는 창원 상남면 마산헌병대 사파정 분견소로부터 남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진해~창원대로 위에서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불렀다. 이 시위는 창원지역의 만세운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독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

1920년대에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년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19년 12월 5일 안준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창원 남면 청년회와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설관수·송석민 등이 1920년 6월 결성한 창원 청년단의 두 청년회가 청년 운동을 이끌었다. 그 뒤 1925년 4월 7개의 청년 단체가 창원청년회를 결성한다. 마산 지역의 경우 1924년 마산청년회가 창립되었다. ‘조선 민중 해방 운

동의 선구가 될 일' 과 '대중의 본위인 신 사회 건설을 기도할 일' 을 2대 강령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강연회, 토론회, 웅변 대회, 체육 대회, 음악 연예회, 동화회 등을 개최하였다. 1925년에는 마산 청년 연합회가 창립되어 마산 청년회, 수양 청년회, 형평 청년회 등이 가입했고, 소년 운동의 지도에 힘을 쏟았다. 진해 지역의 경우 진해 청년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동아 일보』나 『조선 일보』에서 자주 보도되었다. 이외에도 웅천 청년회, 웅동 청년회 등이 있었다.

문화 운동도 활발했다. 1920년 6월경 문화운동의 구심점으로 '마산 구락부' 가 창립되어 교육, 체육, 계몽, 교류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운재를 비롯한 교회 청년들은 공려 청년회를 면려 청년회로 개칭하면서 강연회, 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하는 등 문화 운동에 힘썼다.

사상 단체도 생겨났다. 마산 지역의 경우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1922년 11월 11일 '신인회' 라는 사상단체가 조직 되었다. 신인회는 1923년 8월 조직을 확대하여 혜성사[살별회]로 개편되었다. 혜성사의 구성원들은 노동·농민 운동을 비롯한 민중 운동을 지도하였다. 1924년 마산 노동 동우회를 통하여 경남 지방의 노동·농민 운동 단체를 '조선 노동 총동맹' 에 가입시켰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925년에 건설되는 '조선 공산당' 에도 참여하였다.

농민들도 저항도 격렬했다. 1923년 창원군수 구치이시[口石敬義]가 자기의 영리와 치적에만 열중하자 7월 18일 “농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도지사의 눈을 속여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자 빈약한 농민들을 이같이 못 견디게 하는 왜식 정치 밑에서 살 수가 없다”고 외치며 군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감행했다.

1929년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횡포에 대해서도 저항했다. 창원군 상남면과 웅남면 일대에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된 토지가 수 천 정보였는데, 매년 소작료로 거둬들이는 쌀이 2,000여석이나 되었다. 따라서 매년 소작료 납부 시기가 되면 소작인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11월 18일 상남면과 웅남면의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 항거했다. 진해 지역의 경우 1923년 '진해 소작회' 를 만들어 소작 쟁의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노동 운동도 마찬가지로였다. 1923년 마산 노동 동우회가 결성되었고, 강령으로 무산 계급 해방 운동 동참, 노동자와 소작농의 단결을 피력하였다. 마산 조면 공장 등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노동 단체로는 노동 공제회 마산 지부, 마산 목공 조합, 신마산 노동 동우회 등이 있었다.

진해 지역에서는 동양 제사 주식회사 진해 공장과 진해 타월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쟁의가

발생했고, 이등 독서회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활동하기도 했으며, 1930년 8월 29일 국치일을 맞이하여 웅천면과 웅동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격문을 뿌리고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결성되고 활동했다. 신간회 창원 지회와 마산 지회, 창원 형평사, 창원 청년회, 신간회 창원 지회, 창원 동면 합성회, 창원 여자 청년 동맹, 남면 농민 조합, 남면 청년 동맹 등이었다. 이들 16개 사회 단체가 '마창 사회 단체 협회' 를 만들기도 했다.

일제에 저항했던 학생들 - 창신학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도 컸다. 창원지역에는 일찍부터 인재육성을 위한 많은 민족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908년 개교한 창신학교는 독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강제병합 이듬해인 1911년 새로운 일본국왕인 대정(大正)이 즉위함에 따라 일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각급 기관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천황만세를 소리높여 외칠 것을 주문하는 일제경찰에 대하여 창신학교 학생들은 호응하지 않았고, 저항했다. 이에 일제경찰과 학생들이 충돌했고 학생들은 경찰을 공격하여 자산천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이로 인해 창신학교는 큰 곤욕을 치렀다.

1914년 5월 17일 부터 개교기념일 행사로 추산정[현 마산 시립 박물관 근처]에서 시민을 위한 시국 강연회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이후에도 계속 개최되었다. 때문에 창신학교는 3·1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학생들은 창원지역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1939년에는 신사참배 거부를 주도했고 폐교되기에 이르렀다.

창원출신의 독립운동가들 - 이교재

창원지역에는 일제에 저항했고, 민족 해방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이교재선생도 창원출신 항일독립운동가였다.

1887년 7월 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다 불온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대구형무소에서 2년 6개월 옥살이를 했다. 그후 상해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에서 군자금 모금과 국내 연락책으로 국내로 돌아와 비밀 활동을 벌였다. 현재의 통영시에서 군자금 모금을 하다 1923년 체포되었고, 3년간 마산교도

소에서 두 번째 감옥을 살았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겪기도 했다.

1931년 다시 상해로 돌아갔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장 백범 김구와 내무장 조완구로부터 임시정부의 경상남북도 상주대표 직위를 위임받았다. 이 자격으로 다시 국내로 잠입했다. 그가 맡은 일은 애국지사들과 상해임시정부간에 연락 역할, 각 지방에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는 것, 그리고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 진주, 대구, 창녕 등지로 활동하다 마산에서 체포되어 6년형을 선고 받아 부산형무소에 투옥되었다.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강제 출소 되었다. 하지만 10여일 만인 1933년 2월 14일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교재 선생의 독립활동 모습은 김구선생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이교재선생은 학자고 선비입니다. 인격이 매우 고매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시며 정의감과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독립운동의 방법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관해 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선생은 국내 주재 조직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의 경상남북도 상주대표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장관 몇 명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독립운동자금을 보내오고 연락이 자주 오다가 그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처 조국의 광복을 못 보시고 순국하였으니 하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김구선생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9월 17일 이교재선생이 묻힌 진전면 도산리를 찾았다. 김구선생은 항일독립지사들의 유족을 위로 방문하기 위해 삼남지방을 향하면서 다른 곳 보다 먼저 이교재 선생을 찾았던 것이다.

그의 묘비에는

상해가 세 번이라면
감옥은 네 번이요
기 꺾일줄이 있으라마는
몸은 이미 마쳤구나
아, 임이로다
나라와 겨레의 임이로다.

선생의 묘소로 가는 길은 ‘죽헌로’이다. 정부는 선생의 항일투쟁을 기려 1963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기념과 기억

창원은 정의로운 도시이다. 두 번 씩이나 독재권력을 밀어내었다. 3·15의거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그랬다.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은 자주국가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전쟁과 분단, 독재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사회 실현과 분단극복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요구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일제하의 독립운동가들이 염원했던 ‘한국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을 기념하는 일이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의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현황

박 덕 진 (본회 연구실장)

1. 개요

- 본회를 모체로, 2015년 11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이종찬)’가 조직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창립 이후 2년간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진력해왔습니다.
- 그 결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의 공적 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국가시 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 현재 청와대-국가보훈처-서울시-건립추진위 간에 기념관건립을 위한 협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경과

- 2015. 3. 3.: 본회 김자동 회장과 이종찬 부회장, 이만열 교수와 김선현 이사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당위를 설명하고 박 시장의 지원 약속을 얻었습니다.
- 2015. 7. 17.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조직을 위한 준비모임을 서대문 독립관에서 가졌습니다.
- 2015. 11. 23.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식을 열었습니다. 2부 행사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필요성과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 2015. 12. : 국회를 설득, 2016년 정부예산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타당성조사’ 예산 10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10억원 가운데 2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억8천만원은 불용 처리합니다.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부정적인 정부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 2016. 3. 24~ 4. 4. :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정

세균현 국회의장, 당시 김종인 민주당 대표,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 2016. 7. 12~ : 포탈사이트 다음에서<한국사를 지켜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건립을 위한 스토리펀딩을 연재했습니다. <한국사를 지켜라> (푸른역사 출판)의 저자 김형민 (방송PD) 집필로 진행된 스토리펀딩은 총 2,797명 후원, 누적후원액은 118,034,017원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2016. 8. 4. :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대문구의회 부지를 임정기념관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념관 건립과정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16. 1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 2016. 11. 23.: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1919~1945>를 출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와 단체에 1천4백부를 배포했습니다.
- 2017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 1천4백부, 충남교육청에 620부, 부산교육청에 7백부를 배포했습니다.
- 2016. 12. : 역시 국회를 설득, 2017년 정부예산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설계비’ 예산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예산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한 ‘민간자본보조’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았고, 이런 발목잡기로인해 올해 예산 역시 상당액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7. 3. 1. :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구의회청사를 방문합니다. 문재인 전대표는 임시정부기념관을 국가시설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합니다.
- 2017. 4. 10.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8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 보내온 축사를 통해 당시 대선후보들은 입을 모아 국가시설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약속합니다.
- 2017. 5. 30. : 새정부에서 임명된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시설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방침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합니다.
- 2017. 7. 17. :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 포함됩니다.
- 2017. 8. 15. :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효창원을 참배합니다. 이어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방침을 천명합니다.
- 2017. 10. 9.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축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작들은 설계단계에서 참고자료로 제공됩니다.
- 2017. 11.: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 정부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계획 대강

- (1)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360억원이 정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2) 기존 서대문구의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합니다.
- (3) 2019년 4월 기공식, 2020년 준공의 일정입니다.
- (4)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 향후 건립추진위원회의 과제

- 임시정부기념관의 내실 있는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360억원의 증액과 내년 예산 27억원의 증액을 추진합니다.
- 2019년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2018년 내시공을 추진합니다.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1주년’을 기념해 2018년에 예술제(영화, 음악, 문학)를 엮는다. ☼

여공으로 독립 운동에 앞장선 “박재복”



이 윤 옥

미쓰이 대재벌 공장서
어리디 어린 소녀들

노동력 착취로
시름에 젖어할 때

처진 어깨 다독이며
일본의 패망을 알려줘
푸른 꿈 갖게 한 이여

임의 저항으로
소녀들 권리 찾고

임의 위로로
삶의 희망 얻었으니

임은
조선 여공의 햇불이어라.

박재복(朴在福, 1918.28 ~ 1998.7.18.) 애국지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 대재벌 미쓰이(三井) 그룹이 경영하는 대전의 군시제사주식회사(郡是製絲株式會社)에서 일했다. 당시 이 공장의 노동자 탄압과 부당한 대우 등 식민수탈이 가혹하여 어린 여공들은 이를 타개하고자 1929년부터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다. 동맹파업에 앞장서는 한편 박재복 지사는 1938년 10월부터 '일본 패망론'을 유포하여 동료 여공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국 독립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데 앞장섰다.

조선인에 대한 경계가 삼엄하던 시절 '일본 패망론'을 유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박재복 애국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여공들에게 '조선독립'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이 일로 왜경에 잡혀 1941년 10월 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육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 전 7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 『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 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외 다수. 



영화 <레드 바론>과 <덩케르크>, 영화라는 만화경 속의 전쟁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지난 세기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은 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새로운 대량살상 무기들과 물적, 인적 자원이 남김없이 동원되는 총력전의 양상은 인류 스스로 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충분했던 것이다. 같은 20세기에 태어난 예술로서 영화는 이러한 전쟁의 경험을 생생하게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비록 전선에 있지 않았더라도 영화를 통해 사람들은 전쟁의 이미지를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많은 영화들에서 전쟁은 항상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소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제 전쟁이란 마치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전쟁의 모습을 그린 영화 두 편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영국과 독일이 합작하여 제작한 니콜라이 물러손 감독의 <레드 바론 Red Baron>(2008)



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붉은 남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천재 조종사, 만프레드 본 리히토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리히토벤은 전설적인 공중전 기록을 남기고 26살의 나이로 전사한 독일 제국의 전투기 조종사였다. 영화는 어린 시절 비행을 갈망하던 주인공이 수많은 전투를 거치며, 승부사이자 영웅,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겪는 현실과 내면의 갈등을 담은 전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1차 대전 당시 귀족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비행기 조종사들은 중세시대의 기사도와 같은 환상을 품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주인공 역시 개인급사를 둔 병영생활을 하고, 전투에 임해서도 결투의 예우를 지키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하지만 기계화된 전쟁의 민낯이 점차 드러난다. 주인공은 인간이 전쟁 도구에 불과해지는 냉혹한 참호전의 실상을 서부전선에서 본다. 그의 전투기 역시 살상무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가 더 많은 무공을 세우고 전투 기록을 갱신할수록, 하나 둘씩 소중한 동료의 죽음들을 역시 맛닥뜨린다. 결국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영화에는 주인공과 중군 간호사와의 연정 등 드라마적인 요소 역시 가미되어 있지만, 주인공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회의는 허구적일지언정 관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가 실제로 전쟁 중에 남긴 자서전 형식의 비행교본 <붉은 전투기 조종사>(1917)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매 전투마다 나는 비참한 영혼이 되어 돌아온다. 전쟁이란 사람들이 집에서 상상하는 환호와 포효가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엄숙하고 냉혹한 것이다.”



▲ 영화 <레드 바론> 중에서

한편, 최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Dunkirk>(2017)는 2차 대전 당시 다이나모 작전이라 불리는 연합군의 대규모 후퇴 작전을 그린 영화이다. 전쟁 초기, 독일의 파상공세에 밀린 연합군은 도버해협을 마주한 채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미처 후퇴하지 못한 30만명의 병력을 남기고 있었다. 해상은 독일 유보트의 어뢰가 위협을 하고, 공중에서는 폭격기의 공습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영국은 해군은 물론 민간의 배까지 총동원해서 대규모의 철수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영화는 육지, 해상, 공중의 서로 다른 3가지 시공간을 재배치하여, 이름 모를 병사들과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었던 전쟁의 한 단면을 재현한다. 감독은 <인셉션>(2010), <인터스텔라>(2014)와 같은 전작들과는 달리 퍼즐 같은 이야기 전개와 반전을 절제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기교로써 현실의 이미지들을 겹겹이 쌓아올려 교향시와 같은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다른 전쟁 영화들에서 불거리를 제공하던 대규모 전투 장면도 없고, 적군이랄 수 있는 독일 군들에 대한 묘사도 없기에, 영화 속의 인물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운명에만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덩케르크>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고국으로 가까스로 돌아온 병사들을 맞이하며 ‘오늘의 철수는 위대한 승리를 위한 것’임을 다짐하는 처칠의 연설문으로 끝을 맺는다.

영화 <레드 바론>을 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전쟁을 인식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성장기라 할 수 있다면, 영화 <덩케르크>는 서로 분리된 인물들의 시선을 종합하여



▲ 영화 <레드 바론> 중에서



전쟁의 한 순간을 공간적으로 횡단하는 풍경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두 영화가 다가가고 싶은 전쟁의 본질이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는 때론 만화경처럼 같은 현실이라도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역사와 그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과 영화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상 영화는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기억법의 한 가지가 되어있다. 종전을 통해 식민지 독립을 이루고, 이내 곧 분단 전쟁까지 겪었던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전쟁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한국영화들 역시 크고 작은 논쟁을 불러일으킬지언정 우리가 겪은 전쟁을 다양한 시선에서 지금까지 잘 복기하고 있었다. 비록 지금도 우리 모르게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혹은 먼 세계의 일들을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 피상적인 이미지들로부터 사고하고 판단하는 데도 익숙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교훈이 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다시 구체적인 현실감을 집어넣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시선으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망각과 지적 태만으로부터 긴장감을 재생하는 역할. 아마도 이는 다시 영화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영화 역시 계속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영화의 서글픈 운명이라고 봐야 하지는 않을까.

한편, 우리 극장가에서 전쟁영화들의 흥행 성적들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감독의 유명세

에도 불구하고 <덩케르크>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고, <레드 바론>의 경우 뒤늦은 개봉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아무래도 전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이런 영화들의 시도가 지금의 관객들에게 유독 거창하게 여겨지는 면도 있고, 충분한 여흥거리 역시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쟁 영화들의 크고 작은 부침이 영화의 매체로서의 한계나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영화 <덩케르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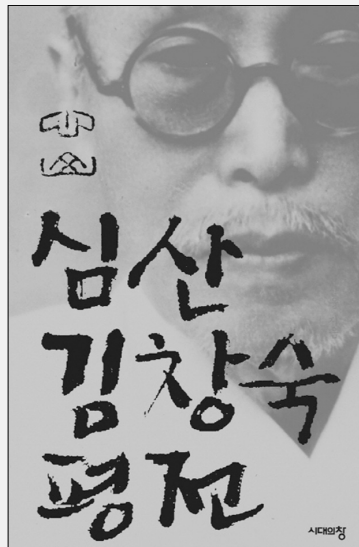


▲ 영화 <덩케르크> 중에서



심산 김창숙 평전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시대의창 • 쪽수 | 540쪽



‘칼을 든 선비’ 남명 조식의 선비 정신을 이어받은 심산 김창숙 선생은 시대의 암흑기에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정도를 당당히 걸어온 참선비다. 일제강점기에 격렬하게 항일 독립 투쟁을 벌이고, 해방 후에는 치열하게 반독재 민족통일운동을 벌인 애국지사다. 이 책은 여든네 살의 생애를 외세와 불의에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일관해온 선생의 행동과 정신을 담았다. 선생은 일제 강점기 격렬하게 항일 독립 투쟁을 벌이고, 해방 뒤에 치열하게 반독재 민족통일운동을 벌인 애국지사인 심산 김창숙. 그는 한국의 마지막 선비였다.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의 현대인물시리즈 세 번째인 『심산 김창숙 평전』은 일제의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두 다리가 마비되어 평생토록 앉은뱅이로 삶을 보낸 선생의 일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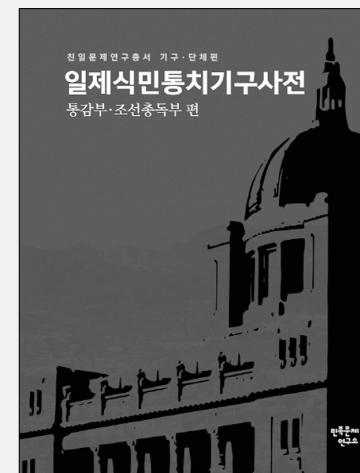
오롯이 그려낸다. 심산은 「독립선언서」에 유럽 대표가 빠졌다면 유럽대표들을 모아 「파리장서 사건」을 일으키고, 국내의 독립운동 열기가 식었다며 청년결사대를 국내에 잠입시켜 나석주 의사 의거를 일으킨다. 또한 중국에 망명해 있다가 독립운동 기지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에 몰래 잠입하기도 했으나, 훗날 심산이 비밀리에 국내를 다녀간 것이 밝혀져 600여 명의 유럽 인사들이 고문과 옥고를 겪는 제2차 유럽단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산은 일제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에도 의연히 맞서는가 하면 일제 관리들을 감복시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심산은 통일조국수립운동과 반독재 투쟁을 벌였고, 유럽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성균관을 수호했다. 일제 청산을 제때에 하지 못한 탓에 왜곡된 역사관이 ‘당당’하게 주장되는 오늘날, 심산 선생의 서릿발 같은 삶은 우리 정신을 일깨우는 따듯한 가르침을 남긴다.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 조선총독부 편

• 지은이 | 민족문제연구소 • 출판사 | 민족문제연구소
• 쪽 수 | 824쪽



이 사전은 일제가 조선 지배를 위해 설치한 통치기구 중에서 우선 최고 권력기구인 통감부·조선총독부 본부와 소속관서들을 수록했다.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1905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에 걸쳐 존속했던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를 모두 망라했다. 수록된 총 248개(통감부 26개, 조선총독부 222개)의 관서와 기구는 일제가 법령 공포를 통해 설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모두 《관보》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편제는 개별 통치기구를 각 1항목으로 설정하고,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로 대별한 뒤 다음으로 통감부 본부·소속관서, 조선총독부 본부·지방관서·학교·위원회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같은 범주 내에서는 설치년도 순으로 정리했다. 각 항목은 표제어(기구명)·존속기간·성격·연혁·조직과 기능·참고문헌 순으로 서술했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직업적’ 친일파들이 위원회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관변단체나 협력단체에 참여한 정도의 숫자는 아니지만, 이완용 박종양 박영효 박영철 송병준 한상룡 이범익 등 다수의 특급 친일파들이 관료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각종 법령이나 정책 규제 용어 등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농촌진흥운동 심전개발운동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등이 새마을운동 새마음운동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 일부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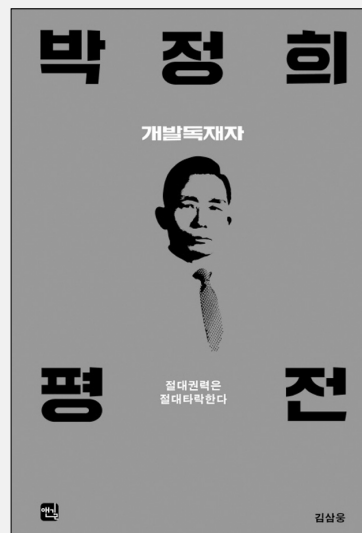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한 각종 관청이나 인물 사진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희귀자료도 수록해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전반에 대한 정리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자료의 정보화 없이 개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연구공동체가 자료의 집적과 집단 작업으로 이를 극복해 냈다.

개발독재자 박정희 평전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앤길 • 쪽수 | 4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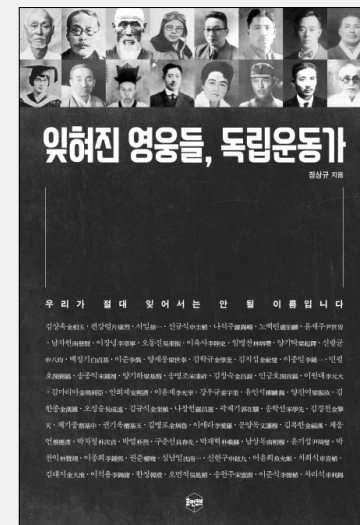


박정희 출생 100주년 역사적 평가를 위한 김삼웅의 인물평전. 독립운동사 및 친일반민족사 연구가로서 수많은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한 김삼웅. 그가 이번엔 출생 100주년을 앞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삶에 주목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를 추적하고 살핀은 물론, 이해하기 쉬운 평론을 덧붙이고 있다. 그동안 출간된 관련 도서는 상당 부분 그를 신격화, 영웅화시킨 것이었다. 반면 이 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삶을 자료와 증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재고해볼 수 있게 한 점을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길진 가난을 극복한 부국의 아버지인지, 민중의 피를 뺀 잔혹한 독재자인지 그 판단은 책을 읽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어느 쪽이 되었든 무조건적인 찬양 혹은 원색적인 비난을 벗어나, 한 인물을 다시 보게 하는 책이 될 것이다.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 지은이 | 정상규 • 출판사 | 휴먼큐브 • 쪽수 | 320쪽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평범한 학생이거나, 시골의 촌부였고, 혹은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 이들은 한 순간의 망설임 없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불과 백년도 되지 않은 역사이지만 지금 이들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묻고, 기억한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의 시작을 뜻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정상규 역시 무명으로 사라진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집필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본의 행태를 보며 분개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라를 되찾겠다는 희망으로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에는 일본이 왜곡한 역사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다.

일본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관심 갖지 않는 것이다.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훈처인사 방문



10월 23일 월요일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보훈선양국장, 현충시설 과장, 임정기념관 담당 사무관이 본회에 내방하여 본회 김자동 회장과 면담을 했다. 또한 기념관 추진위와 임정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

순국선열 한일 합동 위령제



10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 현충사 앞에서 ‘제 17회 순국선열정신선양대회 및 한일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일본이 한국민족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거주 중인 일본회 회원, 이현영 (사)한국종교협의회 회장과 (사)대한민국순국선열 유족회 김시명 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제 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순국선열의 날은 치욕스러웠던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잊지 않기 위해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했으며 그 후 1997년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게 됐다.

오는 11월 17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오토에서는 고려인의 이주이야기를 다룬 모다트의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를 후원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주)오토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서울거리예술축제 후원을 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한 (주)오토 김선현 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 등 꾸준히 역사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인 2019년에 현재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조성될 예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후원하기로 했다.

모다트의 현대무용극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는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진 풍파를 겪어야 했던 고려인의 이주역사를 현대적인 몸짓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또한 고려인과 같이 상해, 항저우 등을 돌아다녀야 했던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0월 6일(금) 무교로, 7일(토) 서울역광장에서 공연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프레스센터 앞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진전을 열었으며, 광복군을 재연하여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또, 대한민국은 씬 없이 진행된 독립운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고, 해방 이후 국군의 창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을 잇는 것이어야 했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국군의 날을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로 제정하도록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 김자동)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이종찬)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참고할 건축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응모자격 제한 없음.

응모분야

1. 임시정부기념관 외관 디자인
2. 임시정부기념관 내부 전시공간 디자인

3. 3.1 항일독립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조형물 디자인
4. 임시정부기념관 외부공간 디자인 (서대문 독립공원과 연계)

일정

10월 9일 ~ 2018년 1월 31일 : 작품 제출

2018년 2월 1일 - 2월 10일 : 심사

2018년 2월 12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수상작 발표

시상

최우수상 : 1작품, 상금 500만원(국가보훈처장상)

우수상 : 3작품, 각 상금 300만원

가작 : 4작품, 각 100만원

특선 (다수 선정)

입선 (다수 선정)

* 제출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작품의 전시, 출판 등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의 기념 및 홍보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의 출판권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귀속되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응모방법

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kopogo.com)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2.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웹하드 (www.webhard.co.kr ID: beihani / PW:kpg1919)에 참가신청서와 작품파일 접수

*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수 분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복수 응모는 불가합니다.

*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A4 10쪽 이내로 작성하며 파일용량은 50 MB 이내로 합니다.

단,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경우, 3분 이내 100 MB 이내로 하고 유튜브 업로드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상도는 720X480 pixel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웹하드에 로그인하셔서 '올리기전용 폴더' 안에 참가신청자의 폴더를 만들어 업로드해주십시오. 이때,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다른 참가신청자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주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후원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감사합니다



10월 31일 작가인 정상규님이 십시일반 성금을 내주신 298명을 대표하여 본회 사무실에 찾아와 성금 1,800,000 원을 전달하였다. 정상규님 외 297분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과 본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 본회에 298명의 뜻을 모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298명을 대표한 정상규님은 ‘독립운동가’라는 앱의 개발자이자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란 책의 저자이다. ‘독립운동가’라는 앱에는 서거일이 알려진 독립운동가 186명이 등록되어 있다. 앱을 설치하면 독립운동가 서거일에 알림이 오고, 독립운동가의 생가와 기념관, 동상을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라는 책은 앱에 등록된 186명 중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67명을 골라 자세히 서술한 책이다.

정기 총회 안내

❖ 오시는 길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470m, 7분 소요)
- 문의처 : 02-3210-0411(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처)
02-724-0274(서울역사박물관)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16시 00분~18시 00분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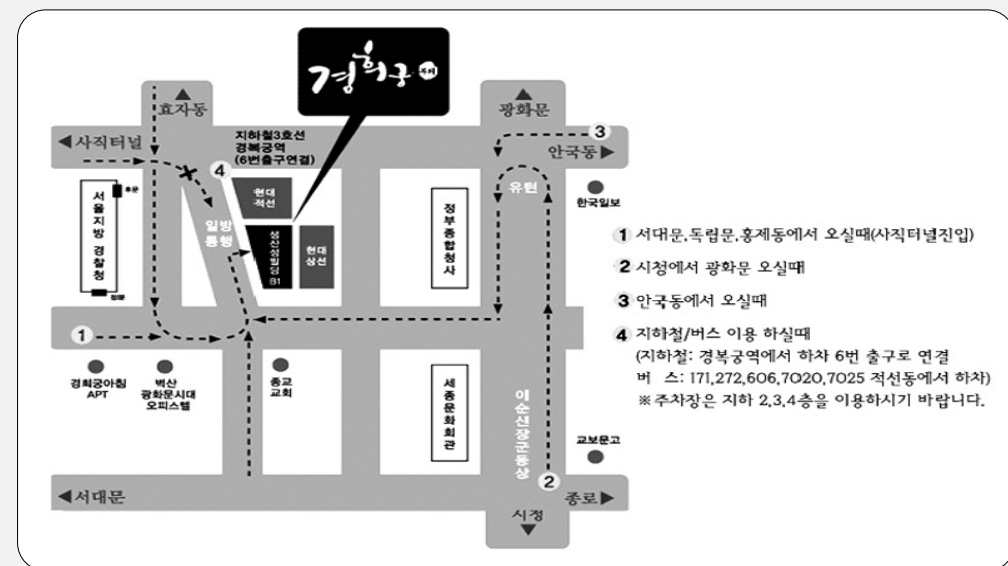
진행 순서

I.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정기 총회

제1부 행사 : 창립 13주년 기념식

제2부 행사 : 제13차 정기총회

- ① 제12차년(임정기념관 10차년) 결산서 승인의 건
- ② 제14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의 건
- ③ 임정기념관 건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회원명	9월	11월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창윤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상윤	5,000	5,000	이학노	20,000	20,000
김광재	5,000	5,000	배석준	5,000	5,000	이항중	30,000	30,000
김동수	30,000	3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해나	20,000	20,000
김동현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률근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봉현	30,000	3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빛나	10,000		서동희	5,000	5,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삼웅	20,000	20,000	서봉수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김선균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석혜진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신윤경	500,000	50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신태영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신홍범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용수	5,000	5,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 위	20,000	20,000	안재웅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안효진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은수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엄기남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영빈	5,000	
김정록	70,000	7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용욱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중숙	10,000	10,000	원영애	20,000	20,000	조회환	20,000	20,000
김진현	50,000	50,000	유덕근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태원	10,000	10,000	윤경자	40,000	40,000	차영조	20,000	
김판수	5,000	5,000	윤용황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윤종순	5,000	5,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호진	10,000	10,000	윤철호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홍수	10,000	10,000	윤한욱	100,000	10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수희	30,000	3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희주	10,000	1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기자	10,000	10,000	한의석	10,000	10,000
노수현	10,000	10,000	이동진	20,000	20,000	한홍구	20,000	2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홍범식	20,000	20,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홍석천	5,000	5,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홍용희	10,000	10,000
민항선	30,000	30,000	이상훈	20,000	20,000	황명하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양순	20,000	20,000	황용만	5,000	5,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2017년 9월, 10월 특별회비

회원명	9월	10월
(주)오토오티오	15,000,000	27,630,000
정상규 외 297명		1,8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②6

이재유와 서대문형무소

‘도망의 귀재’, 일제 경찰이 이재유에게 붙인 별칭이다. 그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전 이미 일본에서 70여 차례나 검속될 만큼 격렬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다. 일제가 붙인 별칭처럼 일제의 감시망을 잘 피했기 때문인지 그에게는 박윤식, 강성철, 김소수, 윤기순, 김소성, 신용수라는 다양한 이명(異名)이 있다. 그의 서대문형무소 수감자기록카드는 매우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에 세련된 얼굴의 도시형 남자와 도피생활로 인해 더부룩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며칠간 세수하지 못한 모습의 사진 두 개가 있다.

이재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진 두메산골을 일컬을 때 쓰는 삼수갑산(三水甲山)의 삼수에서 태어났다. 그는 삼수공립보통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개성(開城) 송도고등보통학교 4학년으로 들어갔다. 다른 학생들처럼 식민지 민족 차별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는 조국 독립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교내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하고 반종교 투쟁했으나 퇴학당했다. 12월경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시내 사립 일본대학(日本大學) 전문부에 입학했으나 학비 문제로 3개월 만에 퇴학당했다. 이후 그는 일본노동조합평의회 계열의 동경합동노동조합(東京合同勞動組合)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27년 11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후보위원이 되었으며, 1928년 4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에 가입, 5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선전부 책임을 맡았다. 1928년 8월, 제4차 조선공산당 관련자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1930년 11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미결구류 500일)을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 김삼룡, 이관술 등을 만나 의기투합하고 1932년 12월 21일 만기 출옥하면서 종래 파벌에 의한 운동을 배격하고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했다. 그는 조선일보사를 통한 언론활동, 공장 중심의 노동조합 조직, 지방별 농민조합 조직, 독서회를 통한 학생운동 지도 등 부문별 운동을 통해 반제기반을 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재유는 경성트로이카 활동으로 1934년 1월 21일 서대문경찰서에 체포당하여 취조를 받았다. 그러나 4월 14일 간수가 순시를 하던 틈을 이용해 탈옥하여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 미야케(三宅鹿之助)의 집에 은거했다. 이재유는 미야케의 집 응접실 마루 밑을 파고 38일 동안 숨어있으면서 응접실 탁자 다리 겉으로 젓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 미야케 교수와 쪽지 통신을 주고받으며 동지들과 연락하였다. 그리고 잠깐씩 굴을 나와 욕실에서 맨손체조와 목욕을 하고 미야케와 쪽지 토론을 벌이며 운동 방침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미야케가 체포되자 도로공사장 인부로 위장하고 기회를 엿보아 다시 경성재건그룹을 조직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이재유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지금의 도봉구 창동)에서 이관술과 함께 농부로 위장해 지내다가 1936년 12월 25일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일경의 구타에도 이재유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고 24시간 동안 자백하지 않음에 따라 이관술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또한 일경은 이재유를 체포 즉시 경찰서로 연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을 묶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재유는 1938년 7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년(미결구류 150일 통산)을 받고, 1942년 9월 12일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비전향자라 하여 출옥하지 못했다. 이후 청주형무소로 이감되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1944년 10월 26일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 • • • •
정치경제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석간 내일신문을 보십시오! 명쾌한 해답이 나옵니다.

경영으로 자립한 신문
그래서 성역 없는 비판이 가능한 신문
바로 석간 내일신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경제적 독립으로부터 나온다’. 2009년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나온 명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내일신문은 국내 중앙일간지 중 올해까지 18년 연속 흑자를 낸 유일한 신문입니다. (주)내일신문은 2012년 현재 액면가의 284%를 주주에게 배당한 ‘경영에 강한 신문’입니다. 내일신문이 쌓아온 경영적 성과는 ‘성역없는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주)내일신문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석간내일신문 외에도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 생활정치의 주역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17개 지역내일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지역정보, 바로 내일신문의 자랑입니다. (주)내일신문은 대학생 대상 발행부수 1위, 열독률1위인 **대학내일**과 주부들을 위한 **미즈내일**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
내일신문은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안내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석간 내일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내일신문** 구독신청: 02-2287-2300 www.naeil.com